

‘탄소중립’ 내세운 광주, 친환경 소비 정책 ‘뒷전’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비 반토막 지난해 국비 56%·시비 37% 삭감 녹색제품 지원·교육 등 사업 중단 센터 방문자 3646→289명 줄어 “환경문제 대응 위한 지원책 절실”

광주시가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으나 정작 친환경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해 녹색제품 생산 및 보급을 지원하는 민간협력기관인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가 정부와 광주시의 예산 삭감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16일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3항(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광주시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6조’ 등에 의해 운영되는 민간협력기관으로,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일곱번째로 문을 열었다.

녹색제품은 생산, 소비, 폐기 등 전 과정에서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을 말한다.

센터는 그동안 녹색제품 보급과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소비자 양성’, ‘친환경 소비문화 형성’, ‘녹색제품 생산 지원’, ‘녹색제품 유통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

특히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빛그린 강사단 양성 및 운영 △녹색생활 관련 대상별 맞춤 교육 △공공기관 의무 구매 교육 △지역축제 및 행사 연계 홍보 △녹색소비 캠페인 △녹색제품 생산·유통 지원 △환경표지인증 지원 및 설명회 △녹색제품 기업 연결 및 발굴 △생산·유통·소비 주체들 간 관계망 구축 △녹색매장 지정제도 참여 유도 △녹색제품 판매장소 모니터링 △친환경 위장제품 모니터링 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국비와 광주시의 예산 삭감으로 센터 운영비가 반토막나면서 주요 사업이 대폭 축소됐다.

센터 예산은 2023년 2억3000만원(국비 1억원·시비 1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1억2600만원(국비 4400만원·시비 8200만원)으로 급감했다. 올해 광주시 지원 예산이 700만원 늘었지만 국비가 더 줄면서 총예산은 지난해와 같다.

부산·제주·인천 등 타 지자체의 경우 줄어든 국비를 시비로 보완해 2억원 수준의 예산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광주 센터는 환경부의 연례 평가에서 2019년부터 전국 10개 센터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지원은 뒷받침되지 않아 탄소중립도시를 내세운 광주시의 정책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센터 예산이 크게 줄면서 2023년 유아, 초등, 청소년, 성인 등 4개 연령층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녹색소비 교육’은 지난해 청소년과 성인 대상으로 축소됐으며 교육 수혜자도 6337명에서 1983명으로 68%나 감소했다. 또 센터는 매년 자체 개발·제작한 교재와 도구를 활용해 교육을 진행해 왔으나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교재 없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녹색제품 기업에 대한 지원과 연대 활동도 중단됐다. 광주에는 약 50~60개의 녹색제품 생산 기업이 있으나 환경표지 인증을 받기 위한 까다로운 심사와 인증 비용 등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보, 판로 확보, 가치 부여 등 후속 지원도 부족해 생산을 하더라도 판매 등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센터는 녹색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기업과의 연대의 자리를 만드는 등의 활동을 펼쳐 왔으나 지난해에는 해당 사업을 아예 진행하지 못했다.

시민들에게 지역 녹색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 피드백을 전달하는 ‘녹색제품 체험 및 구매유도’ 사업도 중단됐다.

2면에 계속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세월호 11주기 목포기억식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은 16일 목포신항만 내 세월호 거치 장소 앞에서 열린 ‘세월호 11주기 목포기억식’에서 세월호 유가족,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참석자들이 ‘세월호 기억과 자유의 춤’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김양배 기자

‘꿈을 안고 장성으로’... 전남도체육대회 장성서 내일 팡파르

7000여명 참가 나흘간 열전 육상·축구·배구 등 23개 종목 김연자·정동원 등 축하공연도

전남도민의 체육 한마당 잔치인 ‘제64회 전남도체육대회’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장성군에서 열린다.

‘꿈을 안고 장성으로, 전남을 품고 세계로’라는 구호 아래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22개 시·군에서 총 6950명(선수 4605·임원 2345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선수단은 육상, 축구, 배구, 족구 등 총 23개의 종목에서 각 시·군 대표들이 고강도의 명예를 걸고 경쟁을 펼친다.

장성 엘로우스타디움과 워라밸돔구장,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등 25개 경기장은

선수들의 땀과 열정으로 가득 채워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장성군 장군이래 최초로 개최되는 도 단위 체육대회로서 큰 상징성과 의미를 갖는다.

대회는 ‘성공적인 대회 운영’, ‘참여와 소통의 체전’, ‘지역경제와 문화가 어우러진 체전’, ‘전남의 미래를 함께 여는 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성군은 대회 준비를 위해 워라밸돔구장, 장성실내수영장,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등 주요 종목 경기장과 편의시설의 개보수 작업을 완료했으며, 선수단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환경 정비, 숙박·음식업소 정돈 등 지역 전반의 정비 작업도 마무리했다.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재미있는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인공지능(AI)

체전네트’, 서예 체험, 편백제품 만들기, 장성군 친환경 농특산물 홍보관 등이 운영된다. 18일 오후 4시30분 장성 엘로우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회식은 22개 시·군 선수단 입장, 개회 선언, 환영사, 기념사, 대회기 게양, 개회사, 축사, 체육인헌장 낭독, 선수선서, 성화 점화 순으로 진행된다. 개회식 후에는 김연자, 김태연, 지오디(god) 손호영·김태우, 린, 정동원 등 인기 가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 최초로 열리는 전남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남의 도약에 기여하겠다”면서 “체전으로 하나 되는 화합의 스포츠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주최 Jangseong 장성군
주관 장성군축제위원회

제24회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2025. 5. 10. (토) - 5. 11. (일) 장성 황룡강변

전야제 5. 9. (금)

뮤직 페스티벌 5. 10. (토)

나들이 5. 12. (월) - 5. 18. (일)